

유고슬라비아의 教育制度와 大學教育

—東歐圈 국가의 大學教育(完)—

金 成 煥
(韓國外大 유고語科)

東歐圈 국가의 大學教育

1. 헝가리의 대학 실태와 교류 전망
2. 체코슬로바키아의 文化와 大學教育
3. 루마니아의 大學教育과 交流 전망
4. 유고슬라비아의 教育制度와 大學教育

1. 개 관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나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및 마케도니아 등 6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社會主義聯邦共和國으로서 유럽의 동남부인 발칸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의 면적은 255만 km²이며 인구는 약 2,260만 명에 달한다. '南슬라브인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유고슬라비아는 오늘날 6개의 슬라브民族(세르비아·크로아트·슬로베니아·마케도니아·보스나 헤르체고비나의 回教徒 및 몬테네그로人)과 알바니아人, 헝가리아人 그리고 이탈리아人 등의 非슬라브계 少數民族이 뒤섞여 살고 있는 多民族國家이다. 언어는 全人口의 2/3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세르보크로아트語나 슬로베니아語 그리고 마케도니아語와 같은 슬라브語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알바니아語와 헝가리語가 통용되고 있다.

서기 600년경 일단의 슬라브인들이 흑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한 발칸 반도에 도달하여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트인 그리고 슬로베니아인들의 先祖이었다. 이 南슬라브인들이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의 영토 내에서 역사상 최초로 單一國家를 이룩하게 된 것은 1918년 '세르비아·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王國'을 건립하게 된 때이다. 그 이전까지 길게는 7~8세기, 짧게는 5세기 동안 각 민족들은 헝가리나 오스트리아帝國(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또는 터키帝國(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및 보스나 헤르체고비나)의 지배를 받으면서 상이한 역사와 文化를 발전시켜 왔다.

제2차 세계 대전중 크로아티아 출신의 救國指導者 티토는 독일군에 對항하여 독립 運動을 전개하는 한편, 國內적으로 社會主義革命을 성공시켜 1945년 社會主義 共和國를 유고슬라비아 제2의 統一國家로 출범시켰다. 1948년 유고슬라비아는 소련이 주도하는 東歐 블럭에서 이탈하여 소련의 高트바초프에 對峙 앞서 페테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찌 정책을 1950년대부터 시작한 가장 進보적인 社會主義國家로 변모하였다.

1950년 경제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50년대말에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정착하게 된 自主管理制度가 教育制度에도 도입되어 유고슬라비아의 교육 기관, 특히 大學이 다른 東歐國家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自律權을 부여 받아 왔다. 또 유고슬라비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방의 자본 지원에 힘입어 1960년대에는 매년 10% 이상의 經濟成長率을 보일 정도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러한 경제 발전은 이 시기 유고슬라비아 大學教育의 質的·量的發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980년 티토가 사망한 후, 지도층의 統治力 결여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상황이 內燃하고 있었던 민족 간의 갈등과 맞물려 현재는 內戰說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난 2년 동안 유고슬라비아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주요한 정치·경제 변화를 몇 가지 지적한다면, ① 多黨制의 도입, ② 經濟分化에 있어서 私有企業 확대, ③ 中央統制 요소를 완전 배제한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 ④ 對外開放政策의 전면 확대 등이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教育制度에도 파급되어, 현재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각 공화국 단위로 근본적인 教育改革案들을 심의하고 있거나 심의가 완료되어 관련 입법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大學을 포함한 유고슬라비아의 전반적인 教育制度의 構造를 살펴 본 후, 大學教育의 歷史와 오늘날의 大學行·財政 制度 및 國際交流 現況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教育制度

유고슬라비아의 교육 제도는 크게 就學前教育, 初等教育, 就業指向教育(中等教育 및 高等教育)으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1) 就學前 教育

취학전 교육은 幼兒園이나 幼稚園과 같은 기관에서 6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데,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관련 법규도 각 공화국이나 自治州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就學前教育에 관한 개별적인 법규가 제정되어 전체 教育制度의 일부분으로 취급하는 지역도 있고 단지 社會福祉制度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 보통 직장에 부설되어 있는 탁아소 기능을 겸하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유고슬라비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就學前 教育機關이다.

就學을 1년 앞둔 어린이들, 즉 보통 6세의 어린이들을 위해 본격적인 정규 교육 이전에 일종의 準備教育을 하는 小學校(small schools)가 운영되는 지역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의무 교육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한다(슬로베니아공화국).

就學前 教育의 비용은 共和國이나 自治州 政府가 교육비와 보험비를 부담하고 부모들은 식비 등의 부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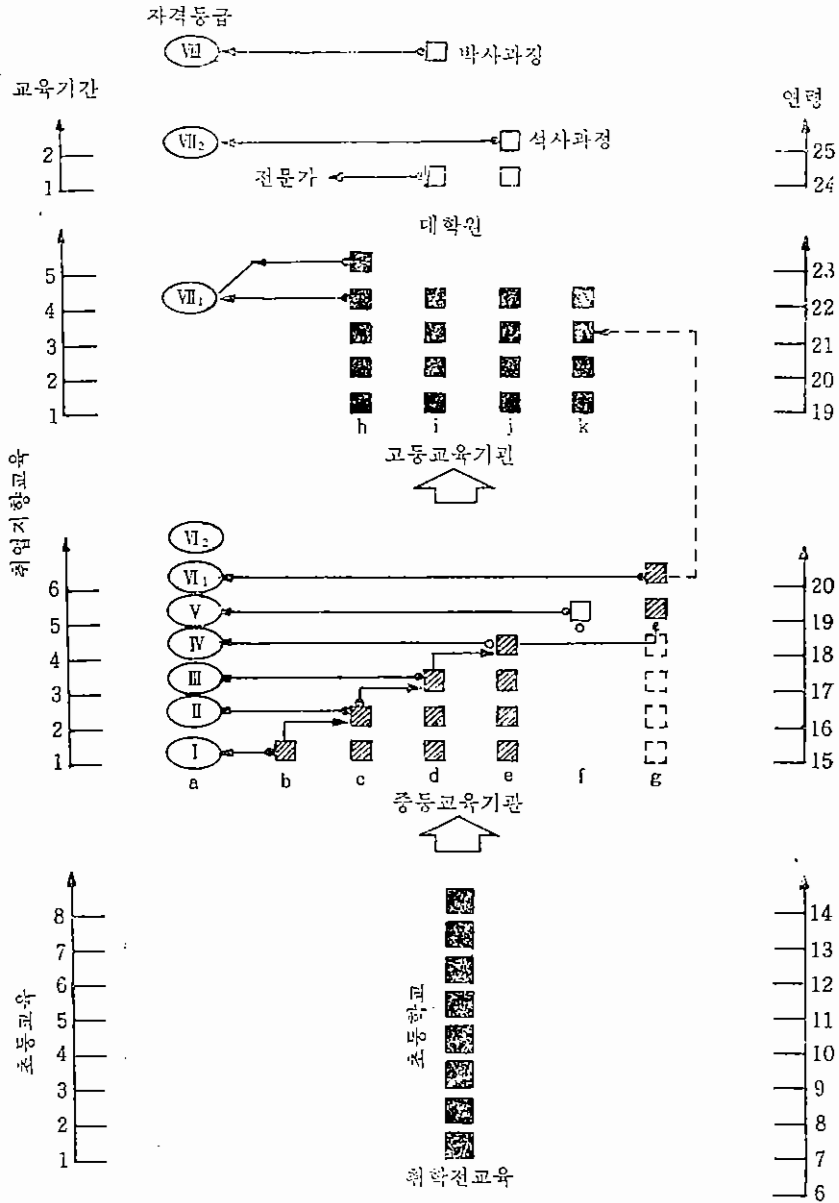
2) 初等教育

初等教育은 無償으로 이루어지는 의무 교육이며, 원칙적으로 7~1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8년간 실시된다. 一般教育을 하는 初等學校와는 별도로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와 成人 대상의 初等教育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 및 음악·무용을 가르치는 예술학교와 같은 특수 초등교육 기관도 존재한다.

一般初等教育은 기본 과목 교육과정(1~4학년)과 선택 과목 교육과정(5~8학년)의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선택 과목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 교육이나 기술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이 실시된다. 대도시 지역의 初等學校에서는 3학년 또는 4학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學校教育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지역 民族의 母國語이다. 여러 민족 또는 인종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多數民族語와 少數民族語가 모두 사용된다. 多數民族의 학생들도 같은 지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少數民族語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다. 1988~'89년도에 대상 아동들의 97.4%가 初等教育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 유고슬라비아의 교육제도



- a. 자격등급 b. 6개월~1년과정 c. 2년과정 d. 3년과정 e. 4년과정 f. 고등직업훈련(1년과정)
 g. 고등직업훈련(2년과정) h. 5년과정 대학 i. 4년과정 대학 j. 예능대학 k. 교원대학
 ● 최종 자격시험 ○ 실습 □ 이론교육과정 ▣ 이론·실습 병행과정 ▨ 4년과정

3) 就業指向教育

就業指向教育(career-oriented education)이라는 개념은 1970 년대에 행해졌던 教育制度 改革의 결과로 도입된 것으로 中等教育과 高等教育(大學 및 大學院 教育)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인데, 최근 2년간 계속되어 온 각 공화국 및 자치주의 教育改革案들은 就業指向教育 개념을 완전 포기하거나 축소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就業指向教育은 기존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이나 현장 실습 또는 時間制 수업의 기회를 통해서 졸업 후 전문 기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中等教育

1970 년대의 教育制度 改革은 一般中等學校, 中等職業學校 그리고 中等見習學校의 세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던 中等教育機關을 두 단계 教育課程으로 구성되는 단일 형태의 中等學校로 통합시켰다. 2년간 계속되는 제 1 단계 교육과정에서는 모국어와 1 개의 외국어 그리고 수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교과목을 가르치는 一般敎科課程을 공통적으로 교육하며, 제 2 단계 교육과정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1년 혹은 2년) 專門教育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3 학년초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관한 進路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와 보스나 헤르체고비나 및 슬로베니아 공화국에서는 1 학년 때 학생들의 進路가 決定되어야 하며, 中等教育의 제 1 단계에 해당하는 첫 2년 동안에도 一般敎育 이외에 졸업 후 진로와 관계된 專門敎科目을 全敎科目의 25%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85 년도에 있었던 教育改革은 中等教育의 몇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 왔다. 즉, 학생들이 中等學校 1 학년에 진학할 때부터 자신의 進路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며, 中等教育을 엄격하게 一般敎育과 專門敎育 2 단계로 분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처음부터 두 유형의 敎育을 병행하되 처음 2 년은 一般敎育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에는 여러 직업 분야에서 요구되

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정도를 표시하는 8 등급의 자격 등급 제도가 있는데, 中等敎育 이수자는 교육 내용과 기간에 따라 제 I ~ V 등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中等敎育機關에서 부여하는 최고의 자격 등급인 제 V 등급은 3~4 년 동안의 中等敎育을 이수한 후에 3 개월~2 년 동안 별도의 專門敎育을 받아야 획득할 수 있다. 대개 제 V 등급을 위한 교육은 작업의 공정을 통제하거나 고도로 자동화된 설비의 작동 및 제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게 될 專門技術人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大學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4 년의 中等敎育(제 IV 등급)을 이수하여야 한다. 1988~'89 년에 中等敎育을 이수한 학생들이 바로 高等教育機關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대상 학생의 29.6%인데, 공화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세르비아공화국은 34%인 반면 몬테네그로공화국은 16.5%에 불과하였다.

② 高等教育

유고슬라비아의 高等教育은 중등교육 이후 2~3 년의 高等職業敎育을 실시하는 專門大學*과정과 4~6 년간 실시되는 正規大學 과정 및 大學院 과정으로 구분된다.

專門大學 敎育은 분야에 따라서는 중등교육 이수 후 1년 6 개월 동안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專門大學 졸업자는 제 VII₁ 등급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간호사, 전문 의료 기사, 공학 기사, 전문 디자이너 또는 물리 치료사와 같은 전문 기술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 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입학 시험을 거쳐 同一系列의 單科大學(faculty)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 단, 準醫療 분야에서 高等職業敎育을 이수한 학생은 醫科大學에 진학할 수 없다.

正規大學 과정은 4~6 년간 계속되는데 社會·人文科學 분야는 4 년, 工學 분야는 4~5 년, 그리고 醫學 분야는 5~6 년의 교육 기간을 요구한다. 대학교육 이수자는 제 VIII₁ 등급의 자격을 얻는데, 工學士(B.S), 經濟學士(B.E) 또는 物理學敎師 등 여러 학문 분야와 예술 분야에서 專門職業人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 해당 교육 기관을 지칭하는 세르브크로아트語 'visoka škola'를 우리 말로 직역하면 '高等學校'가 된다.

專門大學이나 正規大學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中等教育課程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원자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때는 입학 시험이 실시된다. 입학 여부는 專攻과 관련된 中等教育 과목의 성적과 입학 시험 성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中等教育, 심지어는 初等教育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의 직장 근무 경험이 있고 입학 시험 결과 修學能力이 인정되면 입학이 허용된다.

大學院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제Ⅰ등급에 상응하는 高等教育課程을 이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學部에서 동일한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大學院 教育은 實用性이 강한 專門家 養成 教育課程과 大學의 教授要員 養成을 주 목적으로 하는 碩士課程으로 구분된다.

專門家 양성 教育課程은 1년~1년 6개월이 요구되며, 해당 분야에 관한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면 전문가(specialist) 자격이 주어진다. 의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은 3~5년의 교육 기간을 요구한다.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부에서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學問遂行能力을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처음 1년 동안은 강의를 받고 전공 분야의 교수법에 관한 시험과 학문 연구 방법론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석사 논문은 공개적으로 방어하여야 하는데, 석사학위는 제Ⅷ₂등급의 자격에 해당한다.

박사학위는 별도의 박사과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박사 논문이라는 개인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로 얻게 된다. 대학 당국이 박사 후보자의 박사 논문 준비에 관한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논문 주제에 대한 후보자의 분석 능력과 연구 수행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사 후보자의 이러한 능력은 그가 석사과정에서 보여준 연구 능력과 개별적인 연구 논문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박사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청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高等教育 이수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84~'85년도에는 모두 395,175명(인구 1만 명당 156명의 비율)이었는데, 1988~'89년도에는 339,577명(인구 1만

명당 144명의 비율)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유고슬라비아 경제의 전반적인 쇠퇴와 각 공화국 정부의 中等教育에서의 職業教育의 강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3. 大學教育의 歷史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은 1918년 이전까지 상이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진 개별적인 政體를 형성하여 살아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고슬라비아 大學教育의 발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크로아티아는 11세기 이후 헝가리 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아 왔는데,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Zagreb)에서 시작된 大學教育의 初期 發展過程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大學教育의 近代史는 자그레브 대학과 베오그라드대학의 母體가 되었던 중세 및 근대 고등교육 기관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대학이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文化發展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큰 것이었다.

자그레브대학은 1918년 현대적 의미의 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자그레브 新아카데미(Neoacademia Zagrabiensis : 1669~1776), 황립 과학 아카데미(Regia Scientiarum Academia : 1776~1850), 法學아카데미(Regia Academia Iuris : 1850~1874), 자그레브대학교(Zagreb University : 1878~1918)와 같은 4단계 발전 과정을 거쳤다.

1669년 9월 23일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는 제주이트대학(Jesuit College)의 부속 교육 기관으로 新아카데미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자그레브대학의 최초의 母體라고 할 수 있다.

자그레브 新아카데미는 1776년까지 제주이트 대학 내에서 神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었다. 1776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女帝 마리아 테레사(Maria Theresa)의 命에 따라 황립과학아카데미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아카데미에는 神學·法學·哲學 전공의

3개 학과가 설치되었다.

1848년에 유럽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혁명적 사건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혁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에 있어서 전반적인 教育改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1850년 자그레브의 科學아카데미는 法學아카데미로 개편되었는데, 법학아카데미는 法學만을 가르쳤으며 사용된 언어는 독일어였다. 1874년 10월 19일 법학아카데미는 神學部와 哲學部 및 法學과 政治學을 가르치는 法學部의 3개 학부를 가진 近代的 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카톨릭교의 사제이며 교육자인 요시프 유라이 스트로스마이어(Josip Juraj Strossmayer : 1815~1905)이었다. 오늘날 30개가 넘는 單科大學과 연구소로 구성된 자그레브 대학은 1989년 현재 외국인 학생 1천 8백여 명을 포함한 2만 6천 여 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매년 8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15세기초부터 시작된 터어키의 압제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19세기초(1808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립아카데미를 모델로 삼은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을 베오그라드에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일반교육과 법학을 가르쳤으며 정부의 고급 관리와 공무원의 교육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비록 입학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다뉴브강 유역 국가들의 고등교육 기관의 수준에 부합한 최초의 세르비아 고등교육 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1813년 터어키의 압제에 항거하는 세르비아인들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 학교는 閉校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세르비아 고등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게 된 곳은 1838년 베오그라드의 인접 도시 크루셰바츠(Kruševac)에 세워진 리제움(Lyceum)으로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베오그라드대학의 母體가 되었다. 베오그라드대학은 리제움(Lyceum : 1838~1863), 아카데미(Academia : 1863~1905), 대학교(University : 1905~현재)와 같은 3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쳐 오늘의 베오그라드대학으로 성장하였다.

리제움은 미래의 정부 관리들을 양성하기 위

해서 哲學과 法學을 2년 과정으로 개설한 고등교육 기관이었다. 1841년 리제움은 다른 정부 기관과 함께 크루셰바츠에서 베오그라드로 이전하였다. 1853년에 공포된 새로운 法에 따라서 세번째 학과인 自然科學 및 工學科가 신설되었다. 1863년에는 리제움을 토대로 새로운 고등교육 기관인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이 아카데미는 哲學·工學·法學의 3개 학부를 개설하고 교육 기간도 哲學은 3년, 法學과 工學은 4년으로 변경하였다. 1873년 哲學部는 歷史 및 語文學部와 自然科學 및 數學部로 확대 분리되었다.

1905년 새로운 大學法의 채택으로 베오그라드대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05년의 法令은 대학을 ‘專門職業敎育과 學問研究의 最高의 自主管理體’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南슬라브 국가에 있어서 대학의 自律權을 法으로 명시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베오그라드대학은 神學·哲學·法學·醫學 및 技術·工學의 5개 學部를 개설하게 되었다. 현재 베오그라드대학은 23개 單科大學에 1만 5천 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1919년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세번째 대학인 류블랴나대학이 설립되었고, 自主管理制度에 기초한 대학 일반법이 채택된 1954~'82년의 기간은 유고슬라비아 대학교육이 질적·양적 면에서 크게 발전한 시기가 되었다(〈표 2〉 참조).

〈표 2〉 연도별 고등교육 기관 현황

구 분	'70~'71	'80~'81	증가율(%)
고 등 교 육 기 관 수	246	356	144.7
학 생 수	261,203	411,175	157.4
교 수 수	16,783	24,237	144.4

‘高等教育機關 入學에 관한 社會的 協約’(social agreement on first year enrollments i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 1982)은 유고슬라비아의 大學敎育 發展史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특히, 敎育의 現代化·合理化·內實化를 기하기 위한 制度改革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난 2~3년간 각 공화국과 자치주에서 심의되고 있거나 또는 이

미 심의가 완료되어 시행령이 제정되고 있는 大學教育 改革案들은 비록 각 공화국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학생들의 創意性을 고취하기 위한 教育內容과 教育方法 도입
- ② 입학 제도와 입학 후 교육에 있어서 경쟁 제도 강화
- ③ 정부의 教育財政 지원의 감소에 따른 財源 확보 방법의 多元化
- ④ 大學의 研究活動 강화

4. 大學의 行·財政

유고슬라비아는 大學을 비롯한 高等教育機關이 원칙적으로 自治機構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든 고등교육 기관은 의결 기구인 評議會와 여러 分科委員會, 집행 기관인 總長部 및 여러 執行部署로 이루어져 있다.

大學評議會는 대학의 최고 행정 기관으로서 學則, 敎科課程 試案, 學校豫算案 또는 敎授任用·再任用 등 학교 발전과 행정 업무에 있어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大學評議會는 해당 대학의 교수 대표와 학생 대표 그리고 해당 지역의 公益을 대변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評議會의 議長은 보통 대학 외부 인사가 선출된다. 總長은 해당 대학 교수 중에서 선출되며 그 대학을 대표하는 대학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유고슬라비아의 大學校(university)는 결속력이 느슨한 單科大學들(faculties)의 연합체이다. 大學校의 행정 기관은 입학 절차, 구성 대학에 공통되는 교과과정의 통합·조정 및 구성 대학 간의 협력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大學의 財政은 정부 보조와 대학의 연구 활동에서 얻어지는 기금으로 운영된다. 시간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수업료의 일부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모든 大學은 급여, 시설 유지비, 시설 투자 등의 분야에 대한 재정 분배에 있어서 비교적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 사정 때문에 유고슬

라비아 정부는 1979년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 총생산의 비율을 등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의 대학들은 제정난의 타개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 國際學術交流

유고슬라비아 大學의 國際學術交流는 연방 차원이나 각 공화국 차원에서 국제 과학, 교육, 문화 및 기술협력국(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scientific, educational, cultural and technical cooperation)이나 19개 대학의 대표들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大學聯合(Yugoslav university association) 또는 개별적인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57년에 결성된 유고슬라비아大學聯合은 국제 협력 관계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국제 학술 협력 관계를 통해서 자국과 협력 대상국 간에 高等教育制度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모든 학술 분야에서의 경험과 정보 및 출판물을 교환하고 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大學聯合은 주제를 선정하여 협력 당사국의 대표들과 서로의 이론과 경험을 교환하는 형태의 學術交流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83년에는 미국 대학의 대표들과 함께 ‘大學과 大學의 環境’이라는 주제로 학술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87년에는 소련 대학의 총장들과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의 高等教育機關의 發展과 고등교육 기관이 國內 技術發展에 끼친 공헌’이라는 주제로 학술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유네스코의 교육 관련 기구에 참여하는 등 多國間 學術交流協力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大學聯合의 주최로 아드리아해 관광 도시 두브로브니크에서 매년 개최되는(’90년부터는 2년마다 개최) ‘오늘날의 대학’(University Today)이라는 국제 학술 회의는 지난 35년 동안 개발 도상 국가 대학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東·西 양 진영 국가들의 대학을 연결하는 架橋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각 대학들이 외국 대

학과 교수·학생 및 학술 자료의 상호 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유고슬라비아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학술 교류 협정 체결과 같은 직접적인 教育協力關係는 정치적인 이유로 全無하였다. 그런데 지난 '89년 6월 베오그라드대학과 韓國外國語大 사이에 학술 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 최초의 직접적인 教育協力 사례가 되었다. 현재 유고슬라비아 高等教育機關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은 단 1명으로서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자그레브대학에서 세르보크로아트어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르보크로아트어문학 전공을 원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유고슬라비아는 현재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舊東歐圈 國家들과는 달리 韓國學을 개설한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韓國과의 국교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하여 베오그라드대학의 語文大學에서 韓國學科 開設을 위한 토대로서 앞으로 2

~3년 내에 韓國語 講座를 1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Yugoslav Commission for UNESCO, Republican Institute for Education of the SR of Serbia, *Development of Education in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1988~1989.*

Federal Administration for International Scientific Educational, Cultural and Technical Cooperation, *Higher Education in Yugoslavia: Guidebook for Foreign Students* (Belgrade, 1987).

Ivan Božić,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of Belgrade* (University of Belgrade, 1987).

Nikša Šoljan ed., *Higher Education in Yugoslavia* (Andragoški center, Zagreb, 1989).
30 godina Univerziteta u Novom Sadu: 1960~1990 (Novi Sad, 1990).